



합작도 '다시 함께'.

“같은 뿌리, 다섯 시선” 문인화 그룹전 ‘오우화담’

제주에서 문인화를 그리는 다섯 작가들이 한 공간에 모인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2 전시실에서 열리는 그룹전 ‘오우화담(五友畵談)’-같은 뿌리, 다섯 개의 시선’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미영, 김양희, 김점순, 박근영, 오수열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스승인 최형양 작가에게 10여 년 동안 문인화의 기본 정신과 필법을 익히며 제주문인 화연구회, 제주문인화군방도 등에서 활동을 함께해왔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갖고 각자의 시선으로 사유·미감·삶의 태도를 묵향으로 표현한 문인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또 이들이 함께 그린 가로 3m, 세로 2m의 대작 합작도 ‘다시 함께’도 전시된다.

박소정기자

무대 이어가는 뮤지컬 ‘고래의 아이’

올해 문예회관 특성화사업
제주 2곳 선정돼 공연 지원
문예진흥원 2년 연속 선정
올해는 서울 공연도 추진
서귀포예당 ‘환상교향곡’



제주 창작 뮤지컬 ‘고래의 아이’.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공

지난해 초연된 제주 창작 뮤지컬 ‘고래의 아이’가 올해에도 무대를 이어간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은 지역 문예회관의 제작 역량 강화와 지역 고유 공연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에 지원한 전국 문예회관 117곳 중 95곳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 중 제주는 2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뮤지컬 ‘고래의 아이’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뮤지컬 ‘환상교향곡’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도내 공공 공연장으로는 유일하게 이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공모에서 ‘신작 제작형’ 공연에 선정돼 국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 뮤지컬 ‘고래의 아이’를 제작해 지난해 10월 무대에 올렸다. ‘고래의 아이’는 제주 바다의 고래 전설과 제주 4·3을 소재로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가족 뮤지컬로, 제주 지역의 자연·신화·역사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스토리를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는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대표 지역 특

화 공연 레퍼토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연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연은 오는 7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 4·3 평화재단과 협력해 서울 공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에 선정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뮤지컬 ‘환상교향곡’을 제작해 오는 10월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환상교향곡’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1803~1869)의 작품 ‘환상교향곡’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 기반 뮤지컬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제주 8곳의 소극장이 모여 출범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도지회.

제주 8곳 소극장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

제주소극장협회 출범
신임 지회장에 강상훈

제주지역 소극장들이 지역 공연예술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이하 제주소극장협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도내 8곳의

소극장 대표들은 이날 제주시 삼도1동 세이레아트센터에서 제주소극장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참여 소극장은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이다.

제주소극장협회에 따르면 소극장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공연장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생산하는 핵심적인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상업화와 경영난 속에서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 소극장들이 모여 협회를 출범하게 됐다.

제주소극장협회는 앞으로 지역 창작공연 활성화, 실험예술·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제작 환경 마련, 지역 문화콘텐츠 양성 및 유망 기반 확대, 정책 제안과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임 지회장에는 강상훈 세이레아트센터 대표가 선출됐다. 강 신임 지회장은 “공연예술의 다양성을 잃지 않도록 소극장협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영화觀 시라트

죽음으로 하여금

생의 끝에 죽음을 두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죽음 앞의 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쩔지 지나친 비관으로 느껴진다. 살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삶이 수많은 관계들로 이뤄진 복잡하고 미묘한 퍼즐과도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명료하고 단호한 개인의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그 누구도 하나의 죽음을 함께 나눌 수는 없다.

영화 ‘시라트’는 ‘천국과 지옥을 잇는 다리’를 뜻한다. 영화 초반 자막으로 ‘건너려는 자 명심하라. 그 길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롭다’는 이 다리의 위험천만함이 명시된다. ‘시라트’의 초반부는 아무것도 시야에 걸리지 않는 주홍빛의 사막 위에 거대한 스피커로 탑을 쌓고 레ιβ 파티에 흠뻑 취한 레이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사라진 가족을 찾는 루이스와 에스테반 부자가 마치 이방인처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채 움직이고 있다. 누구도 이들에게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와중에 그래도 부자의 절박함에 호의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 군대의 저지로 인해 광란의 파티가 중단되고 루이스 부자에게 호의를 보였던 그 레이버들의 무리가 막힌 길을 뚫고 이탈을 시도한다. 루이스와 에스테반 또한 그들을 따라나선다. 영화는 그때 관객들 눈앞에 ‘시라트’라는 작품의 제목을 내어 놓는다. 마치 지금부터 그 다리 위의 위태로운 여정이 시작된다고 예고하듯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암시하는 설정, 사막 위에서 벌어지는 로드무비라는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시라트’는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로 소개되는 편이 더 적합한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캐릭터들의 개성이나 갈등, 불거리의 현



영화 ‘시라트’

혹으로 대중성을 택하지는 않지만 묘하게도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장치들을 싣고 달리는 ‘시라트’는 레ιβ 뮤직이라는 음악의 강렬함과 사막의 공간음 위에 지뢰의 폭발음을 더한 음향의 강력함을 바꿔치름 쓰는 작품이기도 하다.

‘시라트’는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를 건너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위태로운 의태어들에 관객 각자의 탄성과 비명, 한숨 같은 의성어로 답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채 언어가 되지 못한 것들이,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죽음을 설명한다. 갑작스레 닥쳐오는 타인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이들이 다음 장면을 숨죽이며 기다린다. 우리가 살아 있는 관객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는 페이지의 마지막이 아님을 ‘시라트’는 미사여구 없이 기록하는 쪽으로 엔딩을 마무리한다. 이제 충격이라는 뭉뚱그려진 감각을 관객들 스스로가 해체해야 한다. 무엇이 그토록 얼얼했는지, 어떤 순간이 무서웠는지, 왜 소리 내어 반응하게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을 때 이 잔인할 정도로 건조한 충격의 영화가 남긴 것들, 그 가늘고 날카로운 감각의 실체를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남도기행

고품격 주말 1박2일

독일마을

오동도/유람산

원예예술촌

순천만국가정원

다행마을

***노팁! 노음선! 현지 가이드 동행**

주말 감성 선유도 여행

선유도&전주한옥마을&채석강&옥정호

NO팁, NO음선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후 남해 이동 - 중식(멸치쌈밥정식) - 남해 원예예술촌 - 독일마을을 관광 - 다행이 마을 - 석식(꽃게탕정식) - 여수 노블호텔
2일차(일)	조식(통장어탕) - 오동도 관광 및 유람선 - 중식(게장백반+생선구이정식) - 순천만국가정원 관광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2월 21일 마감일박 *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29,000원
	3인 1실 기준	319,000원
	4인 1실 기준	309,000원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기차마을 - 중식(한정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 슬로우 시티 전주 한옥마을 - 석식(불낙전골) - 전주 시그니처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 - 선유도 유람선 - 중식(꽃게탕) - 채석강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착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3월 7일, 14일, 21일 *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59,000원
	3인 1실 기준	355,000원
	4인 1실 기준	350,000원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